

# 10월 극장가 마동석 vs 토르?...관전포인트



마동석 주연 영화 '범죄도시'가 추석 극장가에 다크호스로 떠오르면 1200만명이 극장을 찾은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10월 개봉작들이 차

## 영화 '범죄도시', 다크호스로 떠올라 BIFF 효과, 유리정원·마더 등 주목

마련. 때문에 오히려 비수기를 겨냥한 영화들이 쏟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번 10월에는 25일 '토르: 라그나로크'가 개봉하기까지 뚜렷한 텐트폴 영화가 없는 상태. 그런 까닭에 '뒤가 열려있다(신작 중 특별한 경쟁작이 없다는 걸 일컫는 영화계 조어)고 판단한 영화들이 대거 선보인다. 당장 12일 관객경쟁 감독의 '희생부활자'와 '블레이드 러너 2049'가 개봉한다. 한 주 뒤인 19일에는 조진웅 주연 '대장 김창수', 보아 주연 '기을 우체국', 제니퍼 로렌스 주연 '마더!'가 선보인다. 25일에는 마블의 '토르: 라그나로크'를 비롯해 문근영 주연 '유리정원', 일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멜로영화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가 개봉한다. 당초 영화계에선 추석 연휴를 선점한 '킹스맨: 골든서클'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외화의 한계로 10월 극장가에선 점점 뒷맛이 사라질 것

으로 예상했다. 그런 까닭에 10월3일 개봉한 '남한산성'이 뒤가 열려 있어 꾸준한 흥행을 하고, 김래원과 김혜숙이 호흡을 맞춘 '특별한 스텔러' '희생부활자'가 빈집털이(경쟁작이 없어 흥행에 성공한다는 걸 뜻하는 영화계 조어)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범죄도시'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추석 극장가를 강타하면서 판도가 바뀌었다. '남한산성'과 같이 개봉한 '범죄도시'는 첫날 '남한산성'에 절반 밖에 안되는 600개 스크린에서 상영됐다. 그렇지만 꾸준한 입소문으로 관객이 늘면서 '킹스맨: 골든서클'과 '남한산성'을 차례로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로 우뚝 섰다. 현재 추세라면 '범죄도시'가 개사라기(뒤늦게 흥행이 불붙는 슬로우 스타터를 일컫는 영화계 조어) 흥행으로 10월 극장가를 장악할 것 같다. '범죄도시'가 '토르: 라그나로크'가 개봉할 때까지 박스오피스 1위를 질주한다면 500만명 돌파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도시'가 날고 '토르: 라그나로크'가 버티는 가운데 10월 극장가 관전 포인트는 부산국제영화제 효과.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먼저 선보인 '너의 이름은'과 '리렌'은 '범죄도시'의 흥행에 상당한 흥행 물이에 성공했다. 올해는 개막작인 '유리정원'과 '마더!',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 등이 영화제 직후 차례로 관객과 만난다. '유리정원'이 부산영화제 개막작은 흥행에 실패했다는 징크스를 겹치지, '마더!'와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가 BIFF 효과를 얻어 흥행 물이를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또 주목할 작품은 '미스 프리지던트', 'MB의 추억' '지백' 등의 김재환 감독이 선보이는 '미스 프리지던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꾀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10.26에 맞춰 10월26일 개봉한다. '미스 프리지던트'가 '공범자들' 등 흥행에 성공한 다큐멘터리 계보를 잇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과연 10월 극장가에 '범죄도시' 같은 깜짝 흥행 결과가 또 나오게 될지, 이래저래 주목할 작품들이 수두룩하다.

## 이연희X정용화의 환장투어 '더 패키지', 시동 걸렸다



는 사건과 소통의 여정을 그린 12부작 드라마다. '더 패키지'에는 한 팀을 이룬 가이드 윤소소(이연희 분)와 7명의 여행자가 있다. 그리고 이들을 쫓는 의문의 추적자 도(윤박 분)도 있다. 9명의 여행자들엔 프랑스 여행을 떠난 각각 다른 이유와 사연이 있고, 이는 각기 다른 9개의 이야기로 그려진다. 제작발표회에서 정찬근 감독은 "패키지 여행은 잘 몰랐던 사람들과 며칠을 지내야 한다. 그것이 저희의 일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행을 가면 감정이나 표현이 일상과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며 '더 패키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의도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작은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소통하게 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되는 것을 '더 패키지'로 통해 그려낼 예정이다. 지난 해 가을, 현지 로케이션 촬영을 위해 프랑스를 떠난 9명의 배우가 실제로 여행하듯 촬영을 했다. 이에 류승수는 "다 같이 합숙했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가족처럼 잘 지냈다. 오히려 너무 친해서 연기하기에 힘들었다고 생각한

다"며 각별한 팀워크를 과시했다. 두 달 동안 프랑스 현지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파리, 몽생마렐, 생말로 등 프랑스의 주요 여행지의 가을 감성과 낭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연희는 "여행은 인생에 중요한 힐링 요소다. 여행을 하고 싶지만 못한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또 드라마 통해 여행했을 때를 그리워하고 추억하면 좋을 것 같다"라며 '더 패키지'만의 감점으로 공감을 줬다. 이어 윤박은 "저희 드라마는 자극적이지 않고, 보면 볼수록 마음이 따뜻하다. 그 안에 재미와 감동도 있다. 소소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관전 포인트 같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최우식은 "배우마다 스토리텔러가 바뀐다. 각자의 인생도 나온다"라며 드라마의 구성을 관전 포인트로 꼽기도 했다. 각기 다른 이유로 패키지여행을 선택한 사람들이 관계를 맺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과 소통의 여정을 그려나갈 '더 패키지'가 전 연령층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불청' vs '용띠클럽'...안방 예능 화요일 밤 '아재 개그' 火끈해

'아재개그'가 화요일밤 안방 예능극장을 순식간에 점령했다. 미중년 스타들의 활약상이 빛나는 SBS '불타는 청춘'의 독주 체제에 제동을 걸기 위해 KBS가 76년생 동갑내기 스타 5명을 투입한 '용띠클럽' 철부지 브로망스로 맞불을 놓으며 화요일밤이 더욱 뜨거워졌다. 지난 10일 방송된 SBS 예능 '불타는 청춘'의 주인공은 새로 투입된 배우 김정균이었다. 20년 만에 예능에 출연한다는 그는 "아재개그"는 내가 만든 것"이라며 "연예인 이름으로 만든 '아재개그'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잠든 사람의 이름'은 '미미자'이고 '어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배철수'라며 원조 '아재개그'를 선보였다. 이날 프로그램에서 함께 대우여행을 떠난 김국진 최성국 김도균 장호일 김광규 박진영 강수지 이연수 등은 새 친구 김정균의 현란한 아재 개그에 크게 호응하는 모습이었다. KBS가 '불타는 청춘'에 대항해 이날 같은 시간대인 밤 11시 새로 선보인 '용띠클럽'의 출연진인 76년생 동갑내기 김중국, 차태현, 장혁, 홍경민, 홍경인도 이날 5박 6일간 여행을 떠나는 첫부분을 선보였는데 20년간 우정에서 나오는 편안한 '쪽중수'로 시청자의 눈길을 잡았다. 1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11시 SBS '불타는 청춘'은 1.2부 시청률 각각 5.2%, 5.7%를 기록했다. 처음 방송된 KBS '용띠클럽'은 4.8%였다. '불타는 청춘'이 일단 수성엔 성공했지만 '용띠클럽'도 나쁘지 않은 첫 성적표였다. '용띠클럽'에 앞서 종영한 '냄비반점'이 1~2%



대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만큼, '용띠클럽'의 첫 방송 시청률은 비교적 높았다. 게다가 고정 시청층이 확보된 SBS '불타는 청춘'의 시청률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불타는 청춘'과 '용띠클럽'의 공통점은 출연진이 40대 이상 미중년들이라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화요일 예능 프로그램의 특성이 아니라 최신 예능 트렌드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엔터테인먼트 홍보 업체 웰위토크의 심영 대표는 "최근 예능계는 '추억소환'이 중요한 이슈다.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반대급부로 추억 소환이 공감대가 높은 아이템으로 주요한 것 같다"며 "요즘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으로 많은 걸 소화한다. TV 분방 시수를 하는 이가 많지 않다. 리모컨을 들고 TV 앞에 앉아 평일 밤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주요 타겟층에게는 중년 스타를, 아재개그 등의 코드가 어필한다"고 분석했다.

##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음력 8월 23일)

- ▶**황소** 36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48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60년생 문서 계약운이 있다.72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84년생 꿈을 접지마라.
- ▶**사슴** 37년생 외출을 삼가라.49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61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3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하라.85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 ▶**황새** 38년생 만사가 해결된다.50년생 산행을 삼가라.62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74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86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 ▶**개미** 39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51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63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75년생 기다림을 알아라.87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 ▶**용띠** 40년생 혼란스러워도 점차 맑아진다.52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64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76년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88년생 호도하는 마음을 잃지마라.
- ▶**물고기** 41년생 가지가 집 주위를 맴돈다.53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65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77년생 순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89년생 욕심을 버려야 뜻을 이룬다.
- ▶**물소** 42년생 여유있게 행동 54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66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78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90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 ▶**양띠** 43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55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67년생 이사에 신중하라.79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91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 ▶**황새** 32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44년생 믿음아래 덕을 받는다.56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68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80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 ▶**물고기** 33년생 출입을 삼가라.4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57년생 근심거리가 생기더라도 집착은 삼가라.69년생 내 자신을 알고 맘을 고요히 하라.81년생 오로지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
- ▶**개미** 34년생 마음을 고요히 하라.46년생 뜻밖의 재물운이 있다.58년생 자신의 영역이 커짐을 느낀다.70년생 낯말은 새가 듣고 방말을 쥐가 듣는다.82년생 정성을 다하면 수확은 분명 있다.
- ▶**개미** 35년생 미련을 버려라.47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59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71년생 무리수는 금물이다.83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

★ 해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